

서울시내 초등학교생들의 음주에 관한 지식 및 태도

문정순 · 양 수 · 송경애 · 박선남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목 차

I. 서론	V. 결론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II. 연구결과	영문초록
IV. 논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부분의 국가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술을 마실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 문화권을 제외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나 현재의 모든 사회가 알코올의 사용에 매우 관대하다.

술은 식품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중추신경계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향정신성 약물이며 중독성이 강한 독성물질이다. 최근에는 그 독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한 물질로 평가되어 임신부나 환자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금지시켜야 할 독성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술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폐해는 성인보다 청소년들에게 더 강하다. 청소년의 경우 신체 내의 세포를 비롯한 모든 조직들이 아직 성숙되지 못하여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약한 단계이며, 또한 알코올의 사용 기간이 성인보다 더 길어지기 때문이다. 알코올은 중추신경억제제로 뇌의 기능을 둔화시키며, 수면이나 마취

효과를 내는 중독성이 강한 습관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급속히 뇌신경 세포로 확산되어 뇌에 마비현상이 일어나 감각과 운동이 약해지며 판단력이 흐려지고 기억력 감퇴가 생기게 된다. 기억력 감퇴는 학습 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알코올로 인해 파괴된 뇌신경 세포는 다른 조직세포와는 달리 재생되지 않는다.

음주를 포함한 약물남용 예방의 궁극적인 목적은 약물을 남용하지 않도록 확신을 주는 것이며, 나아가 약물로 인해 손상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해를 일으킬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태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청소년 초기에 투입될수록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청소년 이전단계부터 지속적인 예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투입이 필요하다(한국알코올과학회 학술부, 2000). 또한 이미 초등학교 시절에 음주를 경험한 학생이 서울 지역이 55.4%(문정순 등, 2001), 부산 지역이 20.7%(간경애와 김영혜, 2000)이므로 초등학교 수준에서 알코올 교육이 소개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Haydock, 1998).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교사의 84.6%가 학교에서 음주예방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의 시작시기는 4, 5, 6학년 때 적절하다고 하였다(문정순 등, 2000).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5, 6학년 체육 교과서의 약물관련 단원에서 약물의 기능, 약물 오남용, 중독의 종류와 피해, 올바른 사용법 등에 관한 교육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으로 구성된 음주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학교 보건교육은 건강에 대한 올바른 개념, 태도,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고 변화가 용이한 시기에 올바른 건강습관을 실생활에 행동화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일생동안 실천할 건강습관이 마련되고, 건강에 대한 지식과 신념이 확립되는 시기이며, 한번 숙지된 건강지식은 나이가 들어도 수정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학생들에게 음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바람직한 보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의 현실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우리 현실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음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청소년이나 중독자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내용도 모든 약물 남용 속에 포함시켜 일부 조사한 것이며,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음주실태나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한 것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인 청소년의 문제음주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한 문제음주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서울 시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음주에 대한 지식 수준을 파악한다.
2. 서울 시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음주에 대한 태도를 파악한다.
3. 서울 시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에 대한 지식 수준을 파악한다.
4. 서울 시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환경적 특성에 따

른 음주에 대한 지식 수준을 파악한다.

5. 서울 시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에 대한 태도를 파악한다.
6. 서울 시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음주에 대한 태도를 파악한다.
7. 서울 시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음주에 대한 태도에 따른 지식수준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서울시내의 5개 초등학교의 4, 5, 6학년 학생 6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자료수집 절차

1999년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서울시 5개교의 학교 책임자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여 허락을 받았다. 허락을 받은 초등학교의 4, 5, 6학년 대상으로 학급의 담임교사나 양호교사가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하였으며, 700부를 배포하여 회수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630명의 자료(90.0%)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도구는 연구원들이 문헌을 참고로 질문지를 개발한 후 초등학교 교사 8인과 교육학 교수, 예방의학교수 각 1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한 다음 교사 5인과 초등학교 4학년 학생 10명에게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수정·보완한 것으로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 및 음주에 관한 지식 13문항과 태도에 관한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자료분석

SAS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환경적 특성 및 음주 실태, 음주에 대한 지식정도, 음주에 대한 태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일반적 특성, 환경적 특성에 따른 음주 경험 및 음주에 대한 지식정도와 태도는 t-test, ANOVA, scheffe test,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학생의 일반적 특성

학생들의 학년별 분포를 보면, 4학년이 30.5% (192명), 5학년이 37.9%(239명)이었으며, 6학년이 31.6%(199명)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52.9% (332명), 여학생이 47.1%(296명)이었다.

학교성적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6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좋은 편이라는 학생들이 24.0%, 나쁜 편이라는 10.3%이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는 78.3%로, 이 중 기독교가 41.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무교로 21.7%, 불교가 20.2%이었다. 교우관계는 친구가 많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56.5%,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40.3%인 반면, 친구가 거의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3.2%였다. 학교 생활은 재미있다가 63.3%로 가장 많았으며, 그저 그렇다가 33.3%, 힘들다가 3.4%였다(표 2).

2. 대상학생의 환경적 특성

학생들의 거주지역은 아파트가 68.4%, 단독주택지역이 23.2%, 상가,공장 및 기타 지역이 8.4%이었다. 경제상태는 '상'이 30.4%, '중이하'는 69.6%이었으며 부모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가 아버지는 65.5%, 어머니는 48.2%이었다.

부모의 관심정도에서도 많다가 74.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보통이라는 학생이 18.6%, 적다는 7.5%이었다. 가정 생활은 화목하다가 78.8%, 그렇지 않다가 21.2%이었다. 부모가 음주자인 학생은 82.0%이었다(표 3).

3. 대상 학생의 음주 경험

초등학교학생들의 음주경험은 무경험자가 44.6%이었고,

경험자가 55.4%이었는데, 경험자 중 즐겨 마시는 학생이 1.9%이었다(표 2).

4. 대상 학생의 음주에 대한 지식정도

대상 학생들의 음주에 대한 지식정도는 총 13점 만점에 평균 8.41점(SD 3.08)이었으며, 범위는 0-13이었다. 가장 정답율이 높은 항목은 음주운전의 위법이 9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음주의 습관화가 84.0%, 음주의 중독성 77.6%, 조기 음주의 유해 77.1%, 판단력 감소 71.6%, 심장에 유해 70.5%였으며, 오답율이 높은 항목은 스트레스 해소로 72.7%였으며, 음주의 조기사망 초래가 61.6%, 음식과 같이 음주시 취하는 것 방지가 57.9% 였다(표 1).

5. 일반적·환경적 특성에 따른 음주에 대한 지식정도

음주에 대한 지식은 4학년이 평균 8.37점, 5학년이 8.30점, 6학년이 8.57점으로 학년에 따른 음주에 대한 지식의 차이는 없었다. 음주 경험 여부에 따른 지식정도도 경험 학생이 평균 8.45점, 비경험학생이 8.39점으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성적이 '상'이 경우가 9.06점으로, '중'인 경우의 8.25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4.13, P=0.0165$)(표 2).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가 8.75점으로 고졸이하인 경우의 8.19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23, P=0.0262$)(표 3). 그 밖의 일반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에 따른 음주에 대한 지식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2, 3).

6. 대상 학생의 음주에 대한 태도

가. 성인의 음주에 대한 태도

버스나 전철에서 성인들의 취한 모습에 대해서는 주위에 피해를 준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아서 54.8%였으며, 다음으로 처벌했으면 좋겠다고 22.4%였다. 또한 경험자와 비경험자 모두 주위에 피해를 준다가 가장 많았으며, 처벌했으면 좋겠다고 그 다음으로 많아서 음주 경험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표 4).

집에서의 음주에 대해서는 안 마셨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51.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량은

괜찮다가 36.0%였다. 그러나 경험자 중 45.6%가 소량은 괜찮다고 하였으며 44.1%는 안 마셨으면 좋겠다고

〈표 1〉 음주에 대한 지식정도

문	항	정 답		합 계 (%)
		학생수 (%)	오 답 학생수 (%)	
	판단력 감소	451(71.6)	179(28.4)	630(100.0)
	기억력 감소	400(63.5)	230(36.5)	630(100.0)
	간기능 저하	431(68.4)	199(31.6)	630(100.0)
	스트레스 해소	172(27.3)	457(72.7)	629(99.8)
	소량 음주의 무해	434(68.9)	196(31.1)	630(100.0)
	음주의 습관화	529(84.0)	101(16.0)	630(100.0)
	심장에 유해	444(70.5)	186(29.5)	630(100.0)
	음주의 발암성	374(59.4)	256(40.6)	630(100.0)
	음식과 같이 음주시 취하는 것 방지	265(42.1)	364(57.9)	629(99.8)
	음주의 조기 사망 초래	242(38.4)	388(61.6)	630(100.0)
	음주의 중독성	489(77.6)	141(22.4)	630(100.0)
	조기 음주의 유해	486(77.1)	144(22.9)	630(100.0)
	음주 운전의 위험	577(91.6)	53(8.4)	630(100.0)
	계			630(100.0)
	범위	0~13점		
	평균±표준편차	8.41±3.08		

무응답 제외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에 대한 지식정도

변 수	구 분	N(%)	M±SD	t or F	p
학년	4	192(30.5)	8.37±2.91	0.45	0.6391
	5	239(37.9)	8.30±3.28		
	6	199(31.6)	8.57±2.99		
	계	630(100.0)			
음주경험	유	345(55.4)	8.45±3.20	0.25	0.8031
	무	278(44.6)	8.39±2.98		
	계	623(100.0)			
성별	남	332(52.9)	8.52±3.08	1.03	0.3054
	여	296(47.1)	8.27±3.08		
	계	628(100.0)			
성적	상	149(24.0)	9.06±3.03	4.13	0.0165
	중	408(65.7)	8.25±3.07		
	하	64(10.3)	8.14±3.14		
	계	621(100.0)			
종교	유	488(78.3)	8.43±3.07	0.20	0.8434
	무	135(21.7)	8.37±3.13		
	계	623(100.0)			
친구	많다	355(56.5)	8.38±3.11	1.01	0.3659
	보통	253(40.3)	8.50±3.00		
	거의 없다	20(3.2)	7.50±3.35		
	계	628(100.0)			
학교생활	재미있다	397(63.3)	8.58±3.03	2.69	0.0686
	그저 그렇다	209(33.3)	8.00±3.20		
	힘들다	21(3.4)	8.95±2.61		
	계	627(100.0)			

Scheffe test : the same letter was a significantly difference

〈표 3〉 환경적 특성에 따른 음주에 대한 지식정도

변 수	구 분	N(%)	M±SD	t or F	p
거주지	아파트 지역	425(68.4)	8.32±3.18	0.69	0.5014
	단독주택지역	144(23.2)	8.60±2.66		
	상가,공장 및 기타	52(8.4)	8.71±3.19		
	계	628(100.0)			
경제상태	상	189(30.4)	8.49±3.11	0.51	0.6104
	중이하	433(69.6)	8.35±3.08		
	계	622(100.0)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200(34.5)	8.18±3.13	1.70	0.0890
	대졸이상	379(65.5)	8.63±2.97		
	계	579(100.0)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299(51.8)	8.19±3.09	2.23	0.0262
	대졸이상	278(48.2)	8.75±2.96		
	계	577(100.0)			
부모의 관심	많음	458(74.0)	8.54±2.99	1.63	0.1967
	보통	115(18.6)	8.02±3.56		
	적음	46(7.5)	8.07±2.50		
	계	619(100.0)			
가정생활	화목하다	495(78.8)	8.45±3.04	0.74	0.4595
	화목하지 않다	133(21.2)	8.23±3.23		
	계	628(100.0)			
부모의 음주	예	511(82.0)	8.36±3.08	0.80	0.4230
	아니오	112(18.0)	8.62±3.05		
	계	623(100.0)			

고 한 반면 비경험자의 57.5%가 안 마셨으면 좋겠다고 하였으며 28.3%가 소량은 괜찮다고 하여 경험자와 비경험자간의 차이가 있었다($\chi^2=21.8$, $P=0.001$)〈표 4〉.

나. 친구의 음주에 대한 태도

친구나 선배가 음주를 하면 말린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아서 55.0%였으며, 다음으로 잘 모르겠다 20.9%로 응답하였으며, 못 본척 한다는 7.6%, 같이 마시겠다는 2.5%로서 매우 고무적인 태도를 보였다. 경험자 중 말린다고 응답한 학생은 60.4%였으며 같이 마신다고 한 경우는 0.7%인데 반해 비경험자는 말린다고 한 학생은 50.6%, 같이 마신다는 3.8%이어서 경험자와 비경험자간의 차이가 있었다($\chi^2=12.2$, $P=0.016$)〈표 4〉.

다. 대중 매체속의 음주장면에 대한 태도

텔레비전이나 잡지에서 음주하는 장면을 보면, 별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과반수를 넘어서 65.3%였으며, 말리고 싶다 20.3%인 반면에, 멋있다가 3.2%, 어른스러워 보인다가 1.6%였다. 또한 경험자 중 말리고 싶다가 23.1%, 나도 마셔보고 싶다

2.2%, 멋있다 1.8%고 응답한데 반해 비경험자는 말리고 싶다가 16.7%, 나도 마셔보고 싶다 8.5%, 멋있다 4.4%로 응답하여 경험자와 비경험자간의 차이가 있었다($\chi^2=18.9$, $P=0.002$)〈표 4〉.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에 대한 태도

버스나 지하철에서 성인들의 취한 모습에 대해서 성적이 '하'인 학생은 '어른들이라 괜찮다'의 8.1%, 주위에 피해를 준다는 41.9%, '처벌했으면 좋겠다'의 22.6%로 응답하였으며 성적이 '상'인 학생은 '어른들이라 괜찮다' 0%, 주위에 피해를 준다 57.7%, '처벌했으면 좋겠다' 26.2%로 응답하여 성적이 나쁜 경우에 버스나 지하철에서 성인의 음주에 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15.6$, $P=0.016$)〈표 5〉.

학교생활이 '재미있다'고 한 학생은 '어른들이라 괜찮다'의 3.1%, 주위에 피해를 준다는 58.8%, '처벌했으면 좋겠다'의 22.7%로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고 한 학생은 '어른들이라 괜찮다' 2.9%, 주위에 피해를 준다 48.1%, '처벌했으면 좋겠다' 22.1%로 응답하였고, '힘들다'고 한 학생은 '어른들이라 괜찮다' 4.8%, 주

〈표 4〉 음주에 대한 태도

번 수	구 분	경험자	비경험자	계(%)	χ^2 (p)
버스, 전철에서 성인의 음주	어른이라 괜찮다	6(2.1)	13(3.8)	19(3.1)	1.63(0.652)
	주위에 피해를 준다	152(55.1)	185(54.6)	337(54.8)	
	처벌했으면 좋겠다	61(22.1)	77(22.7)	138(22.4)	
	잘 모르겠다	57(20.7)	64(18.9)	121(19.7)	
	계	276(100.0)	339(100.0)	615(100.0)	
집에서 성인의 음주	어른이라 괜찮다	11(4.1)	28(8.3)	39(6.4)	21.8(0.001)
	소량은 괜찮다	123(45.6)	96(28.3)	219(36.0)	
	안 마셨으면 좋겠다	119(44.1)	195(57.5)	195(51.6)	
	잘 모르겠다	17(6.2)	20(5.9)	37(6.0)	
	계	270(100.0)	339(100.0)	609(100.0)	
친구, 선배가 음주하면	말린다	166(60.4)	171(50.6)	337(55.0)	12.2(0.016)
	못 본 척 한다	20(7.3)	27(8.0)	47(7.6)	
	같이 마신다	2(0.7)	13(3.8)	15(2.5)	
	어른께 알린다	30(10.9)	56(16.6)	86(14.0)	
	잘 모르겠다	57(20.7)	71(21.0)	128(20.9)	
계	275(100.0)	338(100.0)	613(100.0)		
TV, 잡지에서 음주장면을 보면	나도 마셔보고 싶다	6(2.2)	29(8.5)	35(5.7)	18.9(0.002)
	어른스러워 보인다	5(1.8)	5(1.5)	10(1.6)	
	멋있다	5(1.8)	15(4.4)	20(3.2)	
	별 생각 없다	182(65.9)	221(64.8)	403(65.3)	
	말리고 싶다	71(23.1)	57(16.7)	125(20.3)	
	기타	7(2.2)	14(4.1)	24(3.9)	
	계	276(100.0)	341(100.0)	617(100.0)	

위에 피해를 준다' 42.8%, '처벌했으면 좋겠다' 28.6%로 응답하여 학교생활이 힘든 경우에 버스나 지하철에서 성인의 음주에 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13.2$, $P=0.040$)〈표 5〉.

집에서 성인의 음주에 대해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없었다.

친구나 선배의 음주에 대해서는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말린다'고 응답한 학생은 5학년이 57.8%로 가장 많았으며, '못 본 척 한다'와 '같이 마신다'는 6학년이 10.1%, 3.0%로 가장 많은 반면에 '어른께 알린다'고 한 학생은 4학년이 20.2%로 가장 많아서 학년이 높을수록 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21.3$, $P=0.016$)〈표 5〉.

성적에 따라서도 음주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말린다'고 응답한 학생 중 성적이 '상'인 경우는 52.7%, '중'은 55.6%, '하'는 54.1%이었으며 '어른께 알린다'고 한 경우에는 '상'은 16.2%, '중'은 14.7%, '하'는 6.6%이었으나 '못 본 척 한다'는 '상'이 10.8%, '중'이 5.3%, '하'는 16.4%이었으며 '같이 마신다'는 '상'이 1.4%, '중'이 2.7%, '하'는 1.6%로 성적이 좋

을수록 음주에 대한 태도가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15.6$, $P=0.048$)〈표 5〉.

학교생활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말린다'고 응답한 학생 중 학교생활이 '재미있다'고 한 경우는 59.3%, '그저 그렇다'는 46.3%, '힘들다'는 60.0%이었으며 '어른께 알린다'고 한 경우에는 '재미있다' 15.4%, '그저 그렇다' 12.7%, '힘들다' 5.0%인 반면에 '못 본 척 한다'는 '재미있다' 6.9%, '그저 그렇다' 9.3%, '힘들다' 5.0%이었으며 '같이 마신다'는 '재미있다' 1.8%, '그저 그렇다' 2.9%, '힘들다' 10.0%로 학교생활이 좋을수록 음주에 대한 태도가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22.4$, $P=0.004$)〈표 5〉.

대중매체 속의 음주장면에 대해서 '마셔보고 싶다', '어른스러워 보인다', '멋있다'고 응답한 학생 중 4학년이 9.1%, 2.7%, 5.9%로 가장 많았으며 '별 생각이 없다'는 6학년이 77.9%로 가장 많았고 '말리고 싶다'는 4학년이 26.7%로 4학년이 5.6학년 보다 대중매체 속의 음주장면에 더 현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38.4$, $P=0.001$)〈표 5〉.

대중매체 속의 음주장면에 대해서 '마셔보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 중 학교생활이 '재미있다'고 한 학생은 4.6%, '그저 그렇다'는 6.7%, '힘들다'는 10.0%이었으며 '어른스러워 보인다'는 '재미있다' 2.3%, '힘들다' 5.0%, '멋있다'는 '재미있다' 3.3%, '그저 그렇다' 2.4%, '힘들다' 10.0%, '별 생각없다'는 '재미있다' 62.5%, '그저 그렇다' 72.1%, '힘들다' 60.0%, '말리고 싶다'는 '재미있다' 23.2%, '그저 그렇다' 14.9%, '힘들다' 15.0%로 응답하여 학교생활이 힘든 경우에 대중매체 속의 음주장면에 더 현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8.9$, $P=0.042$)〈표 5〉.

8. 환경적 특성에 따른 음주에 대한 태도

버스나 지하철에서 성인들의 취한 모습에 대해서는 아버지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에서 '어른이라 괜찮다'가 2.2%, '주위에 피해를 준다'가 55.7%, '처벌했으면 좋겠다'가 25.5%로, 고졸이하인 경우에서 '어른이라 괜찮다'의 4.1%, '주위에 피해를 준다'의 56.4%, '처벌했으면 좋겠다'의 16.8%로 학력이 높은 경우가 더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8.7$, $P=0.033$)〈표 6〉.

부모의 관심에 따른 버스나 지하철에서 성인들의 취한 모습에 대해서는 '어른이라 괜찮다'고 응답한 학생 중 부모관심이 많은 경우는 3.6%, 보통인 경우는 2.6%, 적은 경우는 0.0%이었으며 '주위에 피해를 준다'는 부모관심이 많다 55.3%, 보통이다 46.1%, 적다 47.8%이었고, '처벌했으면 좋겠다'는 부모관심이 많다 22.1%, 보통이다 27.0%, 적다 17.4%로 부모의 관심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chi^2=16.1$, $P=0.013$)〈표 6〉.

가정생활에 따른 버스나 지하철에서 성인들의 취한 모습에 대해서는 가정생활이 화목한 경우 '어른이라 괜찮다'는 3.9%, '주위에 피해를 준다'는 56.8%, '처벌했으면 좋겠다'는 21.2%로 응답한 반면에 가정생활이 화목하지 않는 경우 '어른이라 괜찮다'는 0.0%, '주위에 피해를 준다'는 47.0%, '처벌했으면 좋겠다'는 26.4%로 가정생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chi^2=11.7$, $P=0.009$)〈표 6〉.

집에서 성인의 음주에 대해서는 부모가 음주를 하는

경우에서 '어른이라 괜찮다' 7.2%, '소량은 괜찮다' 34.3%, '안 마셨으면 좋겠다' 54.0%이었으며 부모가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의 '어른이라 괜찮다' 2.0%, '소량은 괜찮다' 47.1%, '안 마셨으면 좋겠다' 37.3%로 부모가 음주하는 경우에 성인의 음주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chi^2=24.2$, $P=0.001$)〈표 6〉.

친구나 선배의 음주에 대해서는 부모의 관심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말린다'고 응답한 학생 중 부모관심이 많은 경우는 57.0%, 보통인 경우는 48.3%, 적은 경우는 47.8%이었으며 '못 본척한다'는 부모관심이 많다 5.1%, 보통이다 16.7%, 적다 10.9%이었고, '같이 마신다'는 부모관심이 많다 1.6%, 보통이다 5.3%, 적다 0.0%이었고 '어른게 알린다'는 부모관심이 많다 16.7%, 보통이다 7.0%, 적다 13.0%로 응답하여 부모관심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chi^2=32.5$, $P=0.001$)〈표 6〉.

대중매체 속의 음주에 대해서는 부모의 관심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마셔보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 중 부모관심이 많은 경우는 3.8%, 보통인 경우는 11.4%, 적은 경우는 8.7%이었으며 '어른스러워 보인다'는 부모관심이 많다 1.6%, 보통이다 2.6%, 적다 0.0%이었고, '멋있다'는 부모관심이 많다 3.1%, 보통이다 1.8%, 적다 8.7%이었고 '별 생각이 없다' 부모관심이 많다 64.0%, 보통이다 66.7%, 적다 60.9%, '말리고 싶다'는 부모관심이 많다 20.8%, 보통이다 16.7%, 적다 19.6%로 부모관심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chi^2=22.0$, $P=0.015$)〈표 6〉.

부모가 음주를 한 경우에 대중매체 속의 음주장면에 대해서는 '마셔보고 싶다'가 6.1%, '어른스러워 보인다' 1.8%, '멋있다' 2.3%, '별 생각이 없다' 68.0%, '말리고 싶다' 18.8%이었으며 부모가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는 '마셔보고 싶다'가 3.6%, '어른스러워 보인다' 0.9%, '멋있다' 7.2%, '별 생각이 없다' 54.1%, '말리고 싶다' 27.0%으로 부모가 음주를 한 경우에 대중매체 속의 음주장면에 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chi^2=17.9$, $P=0.003$)〈표 6〉.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에 대한 태도

변수	집에서의 음주				친구, 선배의 음주				TV, 잡지에서 음주장면을 보던				기타	$\chi^2(p)$						
	어른 이러 괜찮다	주위에 아니 괜찮다	처벌 없으면 좋겠다	소강은 괜찮다	어른이라 괜찮다	어른이 괜찮다	어른이 괜찮다	어른이 괜찮다	어른 이러 괜찮다	어른 이러 괜찮다	어른 이러 괜찮다	어른 이러 괜찮다			어른 이러 괜찮다					
4	87 (2.2)	54 (47.0)	85 (29.2)	79 (42.5)	6 (3.2)	13 (7.1)	101 (55.2)	11.6 (0.070)	16 (8.6)	37 (20.2)	5 (2.7)	27 (14.8)	21.3 (0.006)	17 (9.1)	5 (2.7)	11 (5.9)	96 (51.3)	50 (26.7)	8 (4.3)	38.4 (0.001)
5	142 (3.8)	40 (60.2)	126 (29.2)	79 (33.9)	18 (7.7)	14 (5.9)	137 (57.8)	6.9 (0.076)	10 (4.3)	35 (14.8)	4 (1.7)	47 (19.8)	7.4 (0.118)	12 (5.1)	2 (0.8)	3 (1.3)	157 (86.2)	52 (21.9)	11 (4.6)	
6	110 (3.0)	47 (55.3)	36 (23.6)	66 (33.7)	15 (7.7)	20 (8.5)	101 (50.8)	6.9 (0.076)	11 (5.6)	17 (8.5)	6 (3.0)	55 (27.7)	7.4 (0.118)	6 (1.5)	3 (1.5)	6 (3.0)	155 (77.9)	24 (12.1)	5 (2.5)	
남	171 (3.7)	76 (52.6)	66 (23.4)	104 (32.1)	25 (7.7)	24 (7.3)	182 (55.7)	6.9 (0.076)	20 (6.2)	50 (15.3)	12 (3.7)	59 (18.0)	7.4 (0.118)	23 (7.0)	6 (1.8)	14 (4.3)	202 (61.8)	68 (20.8)	14 (4.3)	6.8 (0.237)
여	167 (2.4)	64 (57.0)	55 (21.8)	120 (41.5)	14 (4.8)	23 (9.9)	156 (53.8)	6.6 (0.358)	17 (5.9)	39 (13.5)	3 (1.0)	69 (23.8)	15.6 (0.048)	12 (4.1)	4 (1.4)	6 (2.0)	204 (69.4)	58 (19.7)	10 (3.4)	
상	86 (0.0)	39 (57.7)	24 (26.2)	49 (33.1)	13 (8.8)	16 (10.8)	78 (52.7)	6.6 (0.358)	7 (4.7)	24 (16.2)	2 (1.4)	28 (18.9)	15.6 (0.048)	7 (4.7)	1 (0.7)	6 (4.1)	99 (66.9)	29 (9.6)	6 (4.0)	9.5 (0.488)
중	221 (3.5)	88 (55.3)	77 (22.0)	153 (38.4)	21 (5.3)	21 (5.2)	223 (55.6)	2.2 (0.541)	24 (6.0)	59 (14.7)	11 (2.7)	87 (21.7)	3.6 (0.463)	23 (5.7)	6 (1.5)	10 (2.5)	265 (85.4)	86 (21.2)	15 (3.7)	
하	26 (8.1)	14 (41.9)	17 (22.6)	17 (28.3)	5 (8.3)	10 (16.4)	33 (54.1)	6.0 (0.426)	6 (10.0)	4 (6.6)	1 (1.6)	13 (21.3)	3.6 (0.463)	4 (5.6)	3 (4.9)	4 (6.6)	37 (60.7)	10 (16.4)	3 (4.9)	
유	268 (2.9)	106 (55.8)	92 (22.1)	166 (35.0)	33 (7.0)	34 (15.5)	263 (54.9)	2.2 (0.541)	31 (6.5)	74 (15.5)	12 (2.5)	96 (20.0)	3.6 (0.463)	29 (6.0)	7 (1.5)	16 (3.3)	313 (64.9)	101 (21.0)	16 (3.3)	3.6 (0.610)
무	68 (3.0)	32 (51.7)	29 (21.8)	52 (39.1)	6 (4.5)	6 (4.5)	71 (53.4)	6.0 (0.426)	6 (9.9)	14 (10.5)	3 (2.3)	32 (24.1)	7.1 (0.463)	6 (4.5)	3 (2.2)	4 (3.0)	90 (67.12)	23 (17.2)	8 (6.0)	
많다	207 (3.4)	71 (58.8)	62 (20.2)	115 (33.1)	24 (6.9)	29 (8.2)	196 (55.7)	6.0 (0.426)	19 (5.5)	51 (14.5)	9 (2.6)	67 (19.0)	7.1 (0.463)	19 (5.4)	5 (1.4)	9 (2.6)	234 (66.7)	65 (18.5)	19 (5.4)	15.2 (0.126)
보통	125 (2.8)	63 (50.6)	52 (25.5)	101 (46.8)	13 (5.3)	17 (6.9)	131 (53.3)	6.0 (0.426)	17 (6.9)	37 (15.0)	6 (2.4)	55 (22.4)	7.1 (0.463)	14 (5.6)	5 (2.0)	9 (3.6)	166 (66.1)	52 (20.7)	5 (2.0)	
가리	7 (0.0)	6 (36.8)	6 (31.6)	7 (36.8)	2 (10.5)	1 (5.3)	11 (47.4)	6.0 (0.426)	1 (5.3)	0 (0.0)	0 (0.0)	7 (36.8)	7.1 (0.463)	2 (10.5)	0 (10.5)	2 (10.5)	8 (42.1)	7 (36.8)	0 (0.0)	
없다	228 (3.1)	88 (58.8)	60 (22.7)	143 (51.7)	23 (5.9)	27 (11.8)	232 (59.4)	10.2 (0.117)	21 (5.4)	60 (15.4)	7 (1.8)	65 (16.6)	22.4 (0.004)	18 (4.6)	9 (3.3)	13 (6.25)	245 (62.5)	91 (23.2)	16 (4.1)	18.9 (0.042)
학교 생활	100 (2.9)	46 (48.1)	56 (22.1)	71 (34.6)	12 (5.9)	19 (9.3)	95 (46.3)	6.9 (0.117)	16 (7.8)	26 (12.7)	6 (2.9)	59 (28.78)	7.1 (0.463)	14 (6.7)	0 (2.4)	5 (7.21)	150 (72.1)	31 (14.9)	8 (3.9)	
힘들다	9 (4.8)	6 (42.9)	6 (28.6)	9 (45.0)	4 (20.0)	7 (5.0)	12 (60.0)	6.9 (0.117)	0 (0.0)	1 (5.0)	2 (10.0)	4 (20.0)	7.1 (0.463)	2 (10.0)	1 (5.0)	2 (10.0)	8 (60.0)	7 (15.0)	0 (0.0)	

〈표 7〉 음주에 대한 태도에 따른 지식정도

변 수	구 분	M±SD	t/F	P
버스, 전철에서 성인의 음주	어른이라 괜찮다	7.37±2.50	3.05	0.0280
	주위에 피해를 준다	8.58±2.93		
	처벌했으면 좋겠다	8.76±3.13		
	잘 모르겠다	7.85±3.29		
집에서 성인의 음주	어른이라 괜찮다	8.46±2.85	5.13	0.0016
	소량은 괜찮다	8.29±2.99		
	안 마셨으면 좋겠다 a	8.86±2.89		
	잘 모르겠다 a	6.84±4.11		
친구, 선배가 음주하면	말린다 a	8.83±2.83	7.48	0.0001
	못 본 척 한다	8.47±3.30		
	같이 마신다	7.20±4.00		
	어른께 알린다 b	8.85±2.83		
	잘 모르겠다 ab	7.27±3.17		
TV, 잡지에서 음주장면을 보면	나도 마셔보고 싶다	8.20±3.25	2.17	0.0560
	어른스러워 보인다	9.70±2.16		
	멋있다	8.75±2.24		
	별 생각 없다	8.20±3.18		
	말리고 싶다	9.11±2.65		
	기타	8.38±3.12		

Scheffe test : the same letter was a significantly difference

9. 음주에 대한 태도에 따른 지식 정도

버스나 전철에서 성인들의 취한 모습에 대해서 주위에 피해를 준다는 8.58점, 처벌했으면 좋겠다 8.76점, 어른이라 괜찮다 7.37점, 잘 모르겠다 7.85점으로 성인의 음주에 대한 태도가 엄격한 학생이 관용적인 학생보다 지식정도가 높았다(F=3.05, P=0.0280)〈표 7〉.

집에서 성인의 음주에 대한 태도에서는 안 마셨으면 좋겠다가 8.86점으로 잘 모르겠다의 6.84점보다 지식정도가 높았다(F=5.13, P=0.0016)〈표 7〉.

친구나 선배의 음주에 대한 태도에서 어른께 알린다가 8.85점, 말린다는 8.83점으로 같이 마신다 7.20점, 잘 모르겠다 7.27점보다 지식정도가 높았다(F=7.48, P=0.0001)〈표 7〉.

텔레비전이나 잡지에서의 음주 장면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지식정도의 차이는 없었다.

IV. 논 의

청소년 음주와 그로 인한 부정적 결과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청소년 음주는 폭력과 절도, 성범죄 등 범죄와 교통사고 등

에서부터 학업부진과 사소한 불법행위 및 비행 등의 사회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들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미숙하고 의사결정 능력이나 판단능력도 미숙하여 같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더라도 성인보다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어 많은 문제를 가져 올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초등학교생들의 음주경험은 55.4%로 경험자 중 즐겨 마시는 학생이 1.9%였다. 이로 보아 Haydock(1998)과 문정순(2000)의 주장대로 청소년의 음주예방은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보건교육을 통해서 가능하고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보건교육은 지식의 축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확립하고 태도에 따른 건강 행위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교육으로서 건강에 좋은 행위가 일어났을 때 비로소 그 목적을 성취한 것이라고 하였다(김광호, 1985). 지식은 여러 외적 요소의 영향을 쉽게 받으며, 모든 지식이 효과적인 것은 아니나 물질남용 예방 교육에 있어서는 사실적 정보를 제공하여 물질남용을 예방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식을 높이는 것은 필수적이다(Goodstat, 1986). Fredisdorf (1989)도 술을 포함한 약물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제공,

또래 집단의 압력을 거절하는 기술, 긍정적인 건강에 관계된 태도, 자아개념 증진 등이 필수라고 하였고, 신현정(1996)은 지식의 결여로 인한 물질에 대한 태도가 심각한 위협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지식 증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음주에 대한 지식정도는 13점 만점에 8.41점이었다. 이를 내용적으로 보면 음주운전의 위법이나 음주의 습관화, 중독성, 조기 음주의 유해, 판단력 감소, 심장에 유해 등에 관해서는 비교적 지식 수준이 높고 정답률이 높았는데, 이는 이계록(1994)의 연구결과 청소년들이 담배나 술의 신체적·정신적 악영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었다는 보고와 같은 결과였다. 반면에 음주가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고 알고 있거나 음식과 같이 음주시 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함부로 음주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홍성도와 김승태(1996)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같은 집단에 속하기 위해, 수줍음이나 자신감의 결핍을 숨기기 위해 또는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물질을 남용한다고 하였고,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2000)에서 보고한 내용에서도 청소년들의 음주요인으로 또래와 어울리기 위하여, 어른스럽게 보이려고, 긴장을 해소하고 기분을 풀기 위해,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이유 등을 들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위의 음주요인과 결부시켜 생각해 보면, 학교생활이나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하여 가벼운 생각으로 음주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이렇게 시작된 음주는 습관성과 의존성이 있어 중독이 되기 쉬우며, 이 시기의 음주경험이 앞으로의 음주유형을 결정짓고, 다른 약물이나 금기사항으로의 진행을 보다 쉽게 만든다는 점과 특히 어린 나이인 경우 폐해가 더욱 심각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커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다.

한편, 음주에 대한 지식은 학년이나 음주경험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대상자의 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지식이 높아 그렇지 않은 경우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부모의 관심이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정생활이 화목한 경우가 그렇

지 않은 경우보다 음주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는 초등학교 학생에서 성적이 높은 경우 다른 분야의 지식도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초등학교 학생의 성적에 부모의 관심과 학력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로 사료되며, 지식의 증가는 지속적인 관심과 교과과정을 통한 체계적인 정보제공으로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Engs & Fors(1988)도 지식의 제공은 정보를 한번 교육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조직된 교과과정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문정순(2000)도 정확한 지식을 제공해 주는 정규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 제공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양호교사의 역할강화가 절실하게 요구됨과 동시에 보건교과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동안 이루어진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를 보면, 교육이 지식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것(고홍경, 1990; 길은미, 1993; 이계록, 1994; 남중락, 1995; 최승숙, 1992; 김효숙, 1993; 김소아자 등, 1994; 차현숙, 1997; Bagnall, 1990)도 많이 있으나, 다른 연구에서는 교육방법과 교육내용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교육 후 지식은 높아졌으나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고 보고하여(김택민, 1990; 권인숙, 1991; 노정리, 1996; Collins & Cellucci, 1991; Klepp et al., 1993), 지식과 태도사이에 긍정적인 관계는 있으나(차현숙, 1997) 지식이 높아진다고 해서 항상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태도란 사물, 인간, 상황에 대한 마음이나 일정한 느낌과 경향(Mucchiell, 1970)으로 Allport(1968; 임창희, 1995에서 인용)는 어떤 대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려는 학습된 소인이라고 하였다. 김화중(1987) 역시 태도의 변화도 지식과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초래하지는 못하지만 교육을 통하여 지식을 변화시키고, 지식이 변화되면 태도가 변화되고, 태도가 변화되면 실천을 하게 되기도 하므로 개인의 행동에 직접 혹은 역동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고 오랜 시간이 요구되며, 따라서 청소년들의 음주에 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1-2

주정도 부정적 태도를 강화한 뒤 중단하는 프로그램은 유용하지 않으므로(체육부, 1989) 교육프로그램 개발에는 여러 내용이 고려되어 신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음주에 대한 태도를 공공장소나 집에서 성인의 음주, 친구나 선배의 음주, 대중매체 속의 음주에 대한 태도로 나누어 대상자의 음주경험에 따라, 그리고 일반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보았다.

대상자의 음주경험에 따라서 보면 집안에서 어른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이 관대하였지만 친구나 선배의 음주, 대중매체 속에서의 음주에 대해서는 음주 경험이 없는 학생이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음주시작이 집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과 관련이 있으며(문정순, 2001), 음주경험이 없는 학생이 음주에 대한 호기심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성인의 음주에 대해 성적이 좋고 학교생활이 좋은 경우 엄격한 태도를 보였고, 친구나 선배의 음주에 대해서도 성적이 좋고 학교생활이 좋은 경우 엄격했으나, 학년에 따라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관대한 태도를 보여 학년이 올라가면서 음주를 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대중매체 속의 음주에 관해서는 낮은 학년에서 마셔보고 싶다, 어른스러워 보인다, 멋있다 등 호기심을 보이면서 동시에 말리고 싶다고 한 사람도 5, 6학년에 비해 높아 음주에 대한 양가감정을 보였으며, 학교생활이 힘든 경우 음주장면에 더 현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문정순(2000)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음주예방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낮아짐을 알 수 있으며, 김성천(2001)의 연구에서 술광고와 음주장면의 시청에 따라 음주경험율이 높아졌다는 보고대로 대중매체의 음주장면과 음주경험 및 음주태도는 관계가 있으므로 대중매체를 통한 음주광고 및 음주장면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스트레스 해소책으로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상담과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대상자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음주태도 결과를 보면 아버지의 학력, 부모의 관심정도, 부모의 음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관심에 따라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나 친구·선배의 음주, 대중매체 속의 음주장면 모두에 대해 부모의 관심이 높은 군에서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음주가 청소년의 음주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김성천(2001)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가정과 환경요인은 청소년 음주의 위험요인도, 보호요인도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음주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어른이 좋은 역할 모델이 되어 주어야 하며, 청소년과 술에 대한 대화 기회를 늘리고 불법적인 청소년 음주를 엄격히 금지하는 태도를 취하고 청소년의 행동을 지도감독하며 음주로 인한 문제행동을 빨리 인식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청소년 음주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과 학교·가정·지역 사회를 통합하는 홍보·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00).

이상의 연구결과로 보아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음주에 관한 태도를 이해하고, 학생들이 음주에 관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를 토대로 학생들의 문제음주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본다.

V. 결 론

초등학생들의 음주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초등학생들의 효과적인 음주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서울시 5개교의 4, 5, 6 학년 630명을 대상으로 음주에 대한 지식 13문항과 태도 5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대상학생들의 음주 경험률은 55.4%이었으며 이중 즐겨 마시는 학생은 1.9%이었다.
2. 대상학생들의 음주에 대한 지식정도는 총 13점 만점에 평균 8.41점이었다. 일반적·환경적 특성에 따른 지식 정도는 대상학생의 학교성적이 좋은 군과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유의하

게 높았다.

3. 대상학생의 성인음주에 대한 태도는 버스나 전철에서 성인들의 취한 모습에 대해서는 주위에 피해를 준다는 응답자가 54.8%로 가장 많았고, 학생들의 성적이 좋은 경우, 학교생활이 만족스러운 경우, 아버지 학력이 높은 경우, 부모의 관심이 많은 경우에 성인들의 취한 모습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이고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서의 음주에 대해서는 안 마셨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51.6%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 경험자, 부모가 음주자인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집에서 성인의 음주에 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나 선배의 음주는 말린다는 학생이 가장 많아서 55.0%였다. 음주 비경험자가 경험자보다 친구나 동료의 음주에 더 관대하였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성적이 좋을수록, 학교생활이 좋을수록, 부모의 관심이 많을수록 더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매체 속의 음주장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었다가 65.3%로 가장 많았다. 음주 경험자, 부모가 음주자인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대중매체 속의 음주에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학교생활이 힘들수록, 부모의 관심이 낮을수록 음주장면에 더 현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음주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음주에 대한 태도가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간경애, 김영혜 (2000). 초등학교생의 음주 및 음주경험 실태 조사. 아동간호학회지, 6(1) : 51-59

고흥경 (1990). 서울시내 일부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인숙 (1991). 보건교육 방법별 접근이 여고생의 약물사용 지식 및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길은미 (1993). 일부 남자 고등학교생의 약물남용에 관한 지식 및 태도조사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광호 (1985). 초·중·고등학교 양호실의 실태와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조사. 연세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천 (2001). 초등학교생 음주실태와 정책대안. 한국 음주문화연구센터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움 초록집, 65-75.

김소야자, 현명선, 성경미, 공성숙 (1994). 양호교사가 실시한 초·중·고등학교생들의 약물효과 연구. 연세교육과학, 103-108.

김택민 (1990). 고교생들에 대한 금연교육 효과. 연세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화중 (1987). 지역사회간호학. 서울: 수문사, 170.

김효숙 (1993). 보건교육이 국민학생의 약물사용에 대한 지식 및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중락 (1995). 남자 고등학교생의 약물남용 실태와 관련요인.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정리 (1996). 남자 고등학교생의 '사회적 영향을 강조한 흡연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정순, 양수, 박호란, 이은숙 (2000). 초등학교생의 음주예방 보건교육 방향에 관한 연구-초등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4(1) : 68-79.

문정순, 양수, 유양숙 (2001). 서울시내 초등학교생들의 음주실태.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5(1) : 73-82.

신현정 (1996). 중학생의 약물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계록 (1994). 청소년 약물남용의 실태 및 대책.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창희 (1995). 조직행동. 서울: 학현사.

차현숙 (1997). 약물남용 예방교육이 여중생들의 약물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체육부 (1989). 청소년 약물 오남용 실태와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174, 419-422, 448-465.

최승숙 (1992). 일 실업계 여자 고등학교생들의 흡연실태와 태도 및 지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국알코올과학회 학술부 (2000). 절주하는 사회를 위하여. 대한보건협회.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00). www.kodcar.or.kr/

- clinuc6-3-7. htm.
- 홍성도, 김승태 (1996). 청소년 약물남용. 대한의사협 회지, 39(12), 1496-1500.
- Bagnall, G. (1990). Alcohol education for 13 years olds- does it work ? Results from a controlled evaluation.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85(1) : 89-96.
- Collins, D., & Cellucci, T. (1991). Effects of school-based alcohol education program with a media prevention component. *Psychological Reports* 69(1) : 191-197.
- Eggs, R. C., & Fors, S. W. (1988). Drug abuse hysteria : The challenge of keeping perspective. *Journal of School Health* 58 : 26-28.
- Fredisdorf, M. (1989). Alcohol and drug abuse prevention in Wisconsin public schools. *Journal of School Health* 59 : 21-24.
- Goodstat, M. S. (1986). School-based drug education in North America : What is wrong ? What can be done ? *Journal of School Health* 56 : 278-281.
- Haydock, Avril RMN (1998). Alcohol education in primary schools. *Nursing Standards* 13(6) : 43-46.
- Klepp, K. I., Waahlberg, R. B., Perry, C. L., Jacobs, D. R. Jr, Anderson, K., Grant, M. (1993). Alcohol education among junior high school students. Results from a WHO educational program. *Tidsskriftfor Den Norske Laegeforening*, 113(2) : 202-205.
- Mucchiell, R. (1970). *Introduction to structural Psychology*. NY: Funk & Wagnalls.

ABSTRACT

A Survey on Knowledge and Attitude in Drinking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eoul

Moon, Jung Soon · Yang, Soo · Sohng, Kyeong Yae · Park, Sun Nam
(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 order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problematic drinking prevention program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knowledge and attitude on drinking of the elementary students, a survey was conducted covering 630 fourth, fifth, and sixth graders in 5 elementary schools, in Seoul. Data was collected by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results of the survey analysis were as follows :

1. Among the students under inquiry, 55.4% answered they had the experience of drinking and 1.9% of them enjoy the drinking.

2. The degree of drinking-related knowledge of respondents were 8.41point with the highest score being 13. The score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students with good school record and higher mothers' educational level than those of other group.

3. With respect to the attitude of students toward adults' drinking, 54.8% responded that inebriated adults in the bus or subway cause inconvenience to others. Students who maintain good school grades, are satisfied with school lives, whose fathers have high educational background or who receive great attention from parents showed more negative and strict attitude toward adults' intoxicated appearance. Concerning the drinking at home, 51.6% of respondents said they hope that adults do not drink at home. Students who have experience of drinking and whose parents drink revealed more generous attitude toward adults' drinking at home than those who do not.

With regard to the drinking of friends or senior students, 55.0% of students said they try to stop the drinking. Respondents with no experience of drinking were more generous toward the drinking of friends and colleagues than those who drank before. Students who are in low graded, maintain high school marks, face no problems in school life or receive great attention from parents demonstrated greater disapproval of drinking.

Most respondents(65.3%) said they were not interested in the scene of drinking in mass media. Those having experience of drinking or parents who drink showed more tolerant attitude toward drinking in mass media than those who do not. Students who are in low grades, face many problems in school life or receive small attention from parents showed greater tendency to find the scene of drinking attractive.

4. The more knowledge they get, the more rigid view they had in drinking.

Key words : knowledge, attitude, drink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